

세계 자원봉사자의 해…K-자원봉사 추진방향 모색

호남권 자원봉사센터 관리자 워크숍 개최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권역별 훈련 등 논의

광주자원봉사센터(센터장 류미수)는 29일 광주여대 국제회의장에서 '호남권 자원봉사센터 관리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광주·전남·전북 지역의 25개 자원봉사센터 관리자 120여명이 참석한 이번 워크숍은 유엔이 선포한 '2026 세계 자원봉사자의 해(IVY 2026)'를 맞아 K-자원봉사의 비전과 추진방향을 모색하고 호남권 자원봉사센터의 실천과제와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공론의 장으로 마련됐다. 워크숍은 '세계 자원봉사자의 해를 맞

는 자원봉사의 전환 방향'을 주제로 한 윤희철(전)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센터장의 특강에 이어 자원봉사센터의 역할 변화와 현장의 실천과제를 중심으로 한 분토의로 진행됐다. 특히 돌봄·안전·환경·재난대응 등 지역 현안과 연결된 자원봉사 실천전략이 주요 주제로 다뤄졌으며, 호남권 자원봉사센터의 연대협력 방안으로 지역과 지역을 잇는 불린투어 활성화와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권역별 훈련 등 다양한 주제가 논의됐다.

행사에 앞서 참가자들은 '세상을 잊는 자원봉사, 자원봉사로 잊는 광주·전남'을 주제로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류미수 센터장은 "요즘 광주·전남 통합논의가 최대 화두인데 호남권의 센터가 한자리에 모여 지역 상생의 협력모델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사회문제 해결의 핵심 동력인 자원봉사의 가치 확장과 시민 모두가 일상 속 자원봉사를 실천하는 참여문화를 만드는데 함께 지혜를 모아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광주자원봉사센터는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세계 자원봉사자의 해에 대응한 정책연구와 병행해 호남권 센터 간 상호협력을 통한 공동의 문제해결형 자원봉사 모델을 구체화해 나갈 방침이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광주자원봉사센터는 29일 광주여대 국제회의장에서 '호남권 자원봉사센터 관리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구례군은 최근 구례우체국과 '다문화가족 국제우편(EMS) 요금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구례군-우체국, 다문화가족 국제우편요금 지원 '맞손'

50가구에 사업비 500만원 투입

구례군은 최근 구례우체국과 '다문화가족 국제우편(EMS) 요금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다문화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고국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돋기 위해 마련됐다.

전남도 내 지자체 중 먼저 이 사업을 추진한 군은 사업비 500만원을 투입해 50가구 다문화가족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가구는 횟수에 상관없이 연간 10만 원 한도 내에서 국제우편(EMS)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군은 다문화가족 고국 방문 지원, 자조 모임 지원, 어울림 한마당 행사 등 10여개의 특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순호 군수는 "이번 지원사업이 다문화가족들이 고향에 계신 가족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고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정착하는데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문화가족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복지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례=김귀진 기자 lkkjin@gwangnam.co.kr

장성군산림조합, '희망2026 나눔캠페인' 성금 1000만원 기탁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용

장성군산림조합은 최근 '희망2026 나눔캠페인'에 장성군 노인복지시설(경로당) 기능보강을 위한 성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

설재경 장성산림조합장은 "산림조합은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조직으로서 어르신 돌봄과 취약계층 지원 현장을 찾아 지속적인 사랑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성군산림조합은 매년 취약계층에 대한 사랑나눔을 실천해 오고 있다.



장성군산림조합은 최근 '희망2026 나눔캠페인'에 장성군 노인복지시설(경로당) 기능보강을 위한 성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

개시판

일정 △일자정양립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변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비영리민간단체 노후를 듣는 사람들을 노후생애를 위한 무료교육=50세 이상 중장년층 남녀 15기 모집 주 3일(월·수·금) 1일 2시간씩 6개월간 진행. 영어, 심리상담, 생애 설계, 노래, 댄스, 명심보감 등 진행. 062-223-1357.

△사랑마루협동조합 사회적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장례서비스=기초생활 수급자, 조손가정, 무의탁 독거노인, 저소득층,장애인(3급 이상) 장의입관용품·장례지도사무료지원 062-369-4009.

△아동일시보호 상담=미혼부모아동·결손가정아동·경제적 사정·아동 학대 등 양육환경에 어려움 있는 3세 미만의 아동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입소 상담,

광주영아일시보호소, 문의 062-222-1095·1096.

모집 △구당침·뜸 수강생=가족건강관리, 노후 건강을 위해 '배워서 남주자'란 모토로 구당침·뜸 수강생 모집. 관심 있으신 분 누구나 가능. 뜸시랑 광주·전남지부문의 062-521-3999.

△시니어플래너지도사(자격반)=시·군·구 지부모집. 한국치매예방교육원 광주전남지사 문의 010-5522-9700.

△사회공헌활동 둘봄봉사자=어르신 둘봄봉사자 모집. 13세 이상 가능. 동구노인종합복지관 문의 062-232-4953.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분 받은 대상자 '허그일자리' 무료 취업 신청=취업상담·직업훈련·일자리 알선·교통비 등 취업 지원. 긴급원호·숙식제공·주거지원 등 자립지원 신청 접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 062-513-9936.

운세 (음력 12월 12일)

84년생 금전관계로 지인과 다툴 수 있다
60년생 거래에 기회가 있고 재물도 생긴다
72년생 가능하므로 기대해도 된다
84년생 갖추고 있어야 기회를 수용하게 될 것
96년생 당연히 있어야 할 것이 안 보인다

51년생 부동산 일 보인고 준비에 만전 기하라
63년생 어떻게 하네에 따라 대응이 달리진다
75년생 서두르면 틀어지니 차분히 진행하라
87년생 배우자 외의 이성은 반드시 후회한다
99년생 물은 고달프고 스트레스 쌓이는 날

54년생 어렵사람이 뒤에서 모락하니 행동 조심
66년생 바빠 서두르면 하여간 손해 본다
78년생 주이를 더 지켜봐야겠다
90년생 이익보다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라

57년생 다소 혼란스럽지만 자리를 잡아갈 것
69년생 친구·동료의 도움을 적극적 수용하라
81년생 서로 들어맞지 않아 애를 먹는 날
93년생 연인으로 인해 응상에 빠지는 날

49년생 명예만 앞세우면 낭패를 볼 수 있다
61년생 혁신적 발상의 전환이 선선히 됨
73년생 모난 그릇에 둑근 두정 덮으려는 날
85년생 예상치 못했던 일이 벌어지니 기막히다
97년생 선배에게 사기 당할 우려가 있다

52년생 협소문에 기싸할 수 있으니 신중하라
64년생 팔연적이라면 적극 나서라
76년생 일반적인 방법이 기장 무난하다
88년생 이성의 유혹을 뿌리쳐라

55년생 생각에 따라 방향이 완전히 바뀔 수 있다
67년생 사익한 마음은 절대 금물
79년생 투기에 손 떼고 안전성 있는 일에 투자
91년생 되는 일이 없다고 낙심하지 말라

58년생 갈등이 생기니 지금 있는 자리를 지켜라
70년생 자녀로 인해 부부 갈등 오는 날
82년생 중간 역할 잘 해야 거래처 원망 인든는
94년생 윗사람과 상의해 다음 기회를 기약하라

정은주 교수의 시주·증수·직령

한 쉼터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직원 복지 향상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광주 북구의회 행정자치위, 청사 신관 구내식당 점검

개소 상황·운영계획 등 청취



광주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최근 개관을 앞둔 북구청 신관 구내식당을 찾아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는 최근 개관을 앞둔 북구청 신관 구내식당을 찾아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현재 영양사, 조리원 등 인력 채용을 마쳤으며, 주방 집기 등 필요 물품 구매와 집단급식소 운영에 필요한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설 명절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행정자치위원회들은 구내식당을 운영계획을 청취하고 현장을 점검하며 향후 쾌적한 운영을 위한 철저한 개소 준비를 당부했다.

한양암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은 "구내식당이 단순한 식사 공간을 넘어 동료 직원 복지 향상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건협 광주전남지부, 완도·영광군에 사회공헌 후원금 전달

복지·건강 관련 사업 활용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는 28일 완도군을 찾아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사회공헌 후원금을 전달했다.

맞춤 지원, 건강 캠페인, 예방 중심 건강 관리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운세 (음력 12월 12일)	정은주 교수의 시주·증수·직령
84년생 금전관계로 지인과 다툴 수 있다 60년생 거래에 기회가 있고 재물도 생긴다 72년생 가능하므로 기대해도 된다 84년생 갖추고 있어야 기회를 수용하게 될 것 96년생 당연히 있어야 할 것이 안 보인다	49년생 명예만 앞세우면 낭패를 볼 수 있다 61년생 혁신적 발상의 전환이 선선히 됨 73년생 모난 그릇에 둑근 두정 덮으려는 날 85년생 예상치 못했던 일이 벌어지니 기막히다 97년생 선배에게 사기 당할 우려가 있다
51년생 부동산 일 보인고 준비에 만전 기하라 63년생 어떻게 하네에 따라 대응이 달리진다 75년생 서두르면 틀어지니 차분히 진행하라 87년생 배우자 외의 이성은 반드시 후회한다 99년생 물은 고달프고 스트레스 쌓이는 날	52년생 협소문에 기싸할 수 있으니 신중하라 64년생 팔연적이라면 적극 나서라 76년생 일반적인 방법이 기장 무난하다 88년생 이성의 유혹을 뿌리쳐라
54년생 어렵사람이 뒤에서 모락하니 행동 조심 66년생 바빠 서두르면 하여간 손해 본다 78년생 주이를 더 지켜봐야겠다 90년생 이익보다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라	55년생 생각에 따라 방향이 완전히 바뀔 수 있다 67년생 사익한 마음은 절대 금물 79년생 투기에 손 떼고 안전성 있는 일에 투자 91년생 되는 일이 없다고 낙심하지 말라
57년생 다소 혼란스럽지만 자리를 잡아갈 것 69년생 친구·동료의 도움을 적극적 수용하라 81년생 서로 들어맞지 않아 애를 먹는 날 93년생 연인으로 인해 응상에 빠지는 날	58년생 갈등이 생기니 지금 있는 자리를 지켜라 70년생 자녀로 인해 부부 갈등 오는 날 82년생 중간 역할 잘 해야 거래처 원망 인든는 94년생 윗사람과 상의해 다음 기회를 기약하라